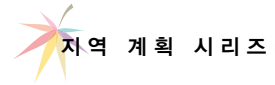


# 지역 소식



3

지역 우선순위 2. 실질 성장

## 성전 의식 봉사자의 부름을 수행하는 청년 독신 성인들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은 2017년 한 해 동안 회원들 개인과 가족, 그리고 와드 지부 등의 단위 조직이 지역 우선순위와 목표에 집중하도록 권유했다. 지역 소식에서는 지역 우선순위와 지역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한 해 동안 게재할 예정이다.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은 지역 계획을 발표하며, 지속적인 개종의 경험을 통해 회원들의 개종을 심화하는 것을 '실질 성장의 의미이자 목표로 제시해 왔다.

더불어 지역 회장단은, 회원들이 자신의 개종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개종을 도울 때 진정한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기쁨을 찾는다", 최윤희 장로, *리아호나* 부록 지역 소식, 2016년 9월호, L1쪽)

최근 서울 성전에서는 성전 의식 봉사자의 부름을 수행하는 젊은 얼굴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선교 사업 전후의 한국 청년 독신 성인들은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에 참여할 뿐 아니라 성전 의식 봉사자로서 부름받아 봉사하고 있다. 그들은 부름을 통해 지속적인 자신의 개종을 경험하고 있으며, 조건 없는 봉사와 헌신을 통해 다른 이들의 개종도 도우며 진정한



칠십인 총관리 역원인 켄트 에프 리차즈 장로는 젊은 청년들의 성전 의식 봉사자 부름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많은 성전에서, 성전 회장님들은 새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엔다우먼트를 받은 젊은이들이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기 전의 짧은 기간 동안, 의식 봉사자로 봉사하는 것을 반깁니다. 이 젊은이들은 봉사함으로써 축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이에게 아름다움과 영을 더합니다."("경건의 능력", 켄트 에프 리차즈,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120쪽)

않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이에게 아름다움과 영을 더합니다."("경건의 능력", 켄트 에프 리차즈,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120쪽)

예비 선교사인 안양 와드 박다진 자매도 의식 봉사자로 봉사하고 있다. 그의 말을 통해 그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는지 알 수 있다. "저 자신의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았을 때 긴장했는데 당시 의식 봉사자분들께서 보여주신 경건함과 너그러운 마음 덕분에 마음이 차분해졌고, 성전 의식에서 아주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쁨과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귀환 선교사인 천안 와드 홍선혜 자매는 매주 성전을 방문하겠다는 목표를 실천하던 중 추천을 받아 의식 봉사자로 부름받았다. "의식 봉사자인 저의 봉사와 참여자분들의 봉사를 통해 휘장 너머에 계신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큰 축복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예비 선교사인 안양 와드 박다진 자매도 의식 봉사자로 봉사하고 있다. 그의 말을 통해 그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는지 알 수 있다. "저 자신의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았을 때 긴장했는데 당시 의식 봉사자분들께서 보여주신 경건함과 너그러운 마음 덕분에 마음이 차분해졌고, 성전 의식에서 아주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7년 3월호 L1

다른 참여자들도 같은 느낌을 받길 바라며 의식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귀환 선교사인 상당 와드 박선빈 형제는 의식 봉사자로 봉사하기 위해 매주 성전에 간다. 그는 선교 사업 때 세웠던 목표대로 매주 성전 의식에 참여하다 의식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부름을 통해 그는 선교사 시절 꿈꾸었던 귀환 선교사의 모습에 다가가게 되었다.

“성전에서 의식을 집행하면서 주님의 계획과 그 위대함을 더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인지 깨닫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회원들께서 고된 몸을 이끌고 먼 길을 이동하여 성전에 오시는 모습을 볼 때,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 큰 비용과 시간을 희생하여 아주 먼 나라에서 서울 성전까지 오시는 회원들의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겸손해졌고 더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복음의 참됨을 느끼고, 큰 기쁨을 얻습니다.”

노량진 와드 독신 그룹의 김지선 자매는 귀환 선교사로서, 외국 유학 시절부터 성전 의식 봉사자로 봉사해 오고 있다. 그는 성전 의식 봉사자의 부름이, 바쁜 삶 속에서 대피소이자 돌파구의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졸업 전 마지막 학기는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당시 와드 감독님조차, 너무 힘들면 의식 봉사자를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중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몇 시간이 제겐 대피소고 돌파구 같아서 봉사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삶의 온갖 바쁜 일들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대피소, 돌아오는 한 주를 이길 수 있는 돌파구요. 성전 봉사는 저한테 이 삶에서 해의 영광을 맛보게 해 주는 치유 같은 거예요.”

서울 성전 회장인 민혜기 형제는 성전 의식 봉사자 부름을 수행하는 청년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선교 사업 이전에 하는 봉사는

예비 선교사들이 선교 사업을 위해 잘 준비되고 영적으로 강화되도록 돕습니다. 선교 사업에서 귀환한 후 청년들은 결혼이나 군대, 학업, 취업 문제 등으로 여러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고,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영적인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가운데 강화되고 주님의 영을 느끼며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성전의 젊은 의식 봉사자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며, 성전에 활기가 느껴집니다.”

청년 독신 성인들이 의식 봉사자로서 받는 축복에 대해, 예비 선교사인 안양 와드 김태훈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성전 의식 봉사자는 가장 높은 표준을 유지하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순결의 법, 복장, 언어 등 모든 부분에서 모범을 보이도록 권고받습니다.

우리처럼 젊은 청년들을 봉사자로 부르신 것은, 사탄의 유혹이 심한 후기에 청년들이 표준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을 강화하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때 따뜻함과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 성전이 주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 지역 우선순위

### 개인/가족

**복음에서 기쁨을 찾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계획의 각 요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복음에서 더 큰 기쁨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해 준비한다.

### 단위 조직

1. 자라나는 세대: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를 강화한다—회원과 비회원 모두.
2. 실질 성장: 우리는 회원의 개종을 심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한다.
3. 자립: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영적 및 현세적 자립을 강화한다.

# 지혜가 부족하거든 ... 구하라!

**대** 전 선교부 모든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2017 연합 청소년 캠프가 지난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동안 천안시에 있는 국립 중앙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렸다. 2017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에 따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 구하라”(야고보서 1:5 참조)라는 경전 구절이 대회의 주제가 되었다.

3월에 입학할 앞둔 예비 중학생부터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예비 청년 독신 성인들까지, 총 301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또한, 조 고문 36명을 포함하여 운영 위원장인 광주 스테이크 김종인 형제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50여 명의 운영 위원회, 준비 위원장인 청주 스테이크 이우철 형제가 이끄는 20여 명의 준비 위원회가 이 대회를 이끌었다.

2016년 여름에 열린 FSY의 열기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많은 청소년들이 이 대회에 열렬한 성원을 보내 왔다. 절반이 넘는 참가자들이 대회 운영 위원회에서 제시한 '사전 미션'에 참가하여, 조셉 스미스—역사를 완독하고 대회 주제인 야고보서 1장 5절을 암기했으며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과 간증을 대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했다.

### 1월 12일 목요일: 대회 첫날

대회 첫날부터 눈이 왔지만, 광주, 대전, 순천, 전주, 청주, 홍성 지역에서 출발한 전세 버스와 개인 차량이 하나씩 안전하게 대회장에 들어섰다. 추운 기온 속에, 대부분의 활동이 실내에서 이루어져 날씨가 대회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다.

청남과 청녀 16~18명으로 이루어진 18개의 각 조에는 청년 독신 형제와 자매 한 쌍이 조 고문으로 각각 지명받았다.

잘 모르는 또래 친구들과 한 조가 되어 어색했던 것도 잠시, 조 고문 만나기와 운동회 시간을 통해 단합하며 청소년들은 금세 같은 조 친구들과 가까워졌다. 개회식에서 들었던 김종인 형제의 요청에 따라, ‘혼자 있는 친구를 보살피는’ 청소년들이 눈에 띄었다.

첫날 저녁, 버라이어티 쇼를 통해 대회 열기는 빠른 속도로 달아올랐다. 난타, 노래, 춤 등, 청소년들이 대회 전부터 잘 준비해 온 공연을 펼쳤다.

### 1월 13일 금요일: 대회 둘째 날

정적인 시간으로 둘째 날 일정이 시작됐다. 조별 복음 공부 시간과 전국에서 특별 초청한 교사들의 공과 시간을 통해 청소년들은 진지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간증을 나누었다. 특히 대회 주제와 관련하여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도움을 구하는 용기와 신앙도 키웠다. 대회 주제를 탐구하는 기회는 오후에 열린 '활동 세미나'를 통해 계속됐다.

둘째 날 마지막 순서인 무도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진행하고 춤도 가르쳤다. 청소년들이 무도회에서 보여 준 적극적인 모습이 고문들을 놀라게 했다.

#### 1월 14일 토요일: 대회 셋째 날

숨 가쁘게 흘러간 대회 일정 속에 청소년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고작 사흘이 지났을 뿐인데 벌써 작별 시간이었다.

'레알 토크쇼' 순서에서 지역 칠십인인 배동철 장로와 서울 동 종교 교육원의

한승룡 형제가 청소년들이 보내 온 진지한 질문에 대답하고 간증을 나눴다.

간증 모임 시간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간증을 나누고자 줄을 섰고,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여 모두가 짧게, 하지만 진심 어린 간증을 나누었다.

순천 지방부 청남 박귀현 형제는 "믿음이 작아졌을 때 더 두렵고 슬퍼하게 됩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특히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 구하면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했다. 광주 스테이크 청녀 조시연 자매는 "공과를 통해 선교 사업에 대한 소망을 키웠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사실이 제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줍니다."라고 전했다.

배동철 장로는 폐회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전세에서 의로운 영이였음을 선언하고, 봉사과 희생을 통해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요청했다. "선교사로 나가지 않는 것은 새가 날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리차드 지스코트 장로의 말씀을 인용한 배 장로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모든 신권 형제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대회장인 배동철 장로를 중심으로 이 대회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애써 온 청년들과 지도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다. 이들이 이곳에서 얻은 배움의 결실은, 각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그들이 행하는 모범과 봉사를 통해 계속될 것이다. ■



## 나의 영원한 선교사 이해진 자매님께

“사랑의 편지” 시리즈는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는 편지글로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격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담고 있다. 사랑의 편지는 2017년 한 해 동안 연재된다. 이번 3월호에 실리는 두 가지 편지는, 선교사와 구도자로 만났던 두 자매가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다.

### 나의 영원한 선교사 이해진 자매님께

선교사님. 귀환하신 지 오래 되어 이제 자매님이라고 불려야 하는데 ... 처음부터 저를 가르쳐주시는 선교사님으로 만났고, 앞으로도 저를 이끌어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호칭을 고치는 게 쉽지 않네요.

자매님을 처음 만난 때가 벌써 8년 전입니다. 우연히 마주친 자매 선교사님들께 우리 딸 소연이가 “Hello.”라고 인사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연은 그걸로 끝이었을까요?

이해진 자매 선교사님이 흥덕 와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서운함은 말로 다 표현을 못 해요. 안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가장 친한 친구를 잃는 느낌이었고 그건 소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가족이 다른 지역에 살다가 작년 말 흥덕 와드로 다시 이사했을 때, 선교사가 아닌 저와 같은 흥덕 와드 회원으로 계신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매님을 다시 보내주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이웃사촌이 되어 함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 우리 가족 모두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집을 방문해 주셨던 모든 자매 선교사님들이 천사 같다고 생각했고, 그 좋은 느낌은 제가 이 교회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했어요. 우리 남편도 구도자로 복음을 배울 때 선교사님들을 천사라고 생각하더군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영은 우리 가족에게 계속 선한 영향력과 축복을 가져왔어요. 가족 중 소연이와 저만 교회에 다닐 때는 무언가 퍼즐 한 조각이 빠진 것 같은 신앙 생활을 했지만, 1년 전 남편의 개종으로 이제는 우리도 가족 회원이 됐어요. 가족도 신앙 생활도 기본이 다 갖추어졌어요. 마지막 한 조각까지 맞춰진 완전체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소연이가 침례를 받을 때는 우리 남편이 반대하지 않는 것만으로 그저 감사했었는데 ... 하지만 제가 침례받을 때는 침례식을 보러 오라는 핑계를 대서라도 남편을 교회로 꼭 초대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강한 느낌이 있었어요. 비록 그 이후에도 오랜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했지만, 소연이부터 시작해서 저, 그리고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둘째 지율이 “하나님 아버지.”라며 기도를 시작할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벅차옵니다. 선하고 맑은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영을 부어주셨고,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은 우리 가족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누리는 모든 축복이 자매님과의 만남과 자매님의 도움에서 비롯했다는 것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자매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작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가족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과 교회에 좀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매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자매님이 협착하고 좁은 길을 지날 때, 쇠막대를 끝까지 잡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해요!

자매님의 헌신적인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지원 자매.

### 여러분의 편지를 기다립니다

**사**랑의 편지: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내는 간증과 사랑의 메시지를 공유해주세요. 선교사와 주고 받은 편지, 사랑과 사과를 표현하는 편지, 특별한 기념일에 보내는 (간증이 포함된) 편지글 등이 포함됩니다.

<기사 기고 및 제보 방법>

이메일:

kah\_liahona@daum.net

전화: 02)2232-1441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길 5(신당동) “리아호나

지역 소식 담당자 앞



## 사랑하는 김지원 자매님께

자매님, 선교사와 구도자로 처음 만나 인연을 맺어온 지도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매님과 같은 와드에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설렘인지 몰라요. 8년 전 자매님을 처음 만났을 때 소연이를 업고 계셨던 모습이 떠올라요. 한 달 후 전도를 위해 무작위로 어느 집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어주며, '아 그때 그 선교사들 ...' 하고 우리를 알아보셨던 그 표정, 다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어요. 본인은 관심이 없다고 하셨지만, 소연이의 복음 토론을 지켜보며 곁에서 서서히 준비되어 가셨던 일련의 과정들 모두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선교사로서 자매님과 함께하며 제가 얻었던 기쁨과 배움은, 간증이라는 등의 기쁨이 되어 여전히 제 신앙에 불을 밝혀 주고 있어요. 소연이가 침례받을 날짜를 정하던 무렵, 해가 기울어져 가는 교회 앞뜰에서 자매님은 눈물을 보이시며 "이제 저를 가르쳐주세요."라고 말씀하셨죠. 자매님이 침례를 받으시던 날,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에 눈물이 난다"라고 간증하셨을 때 얼마나 제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5) 항상 자매님을 떠오르게 하는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개종하는 모습을 볼 때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선교 사업이 끝나간다는 것이 너무 아쉬워 시간을 붙잡고 싶었어요.

해임받은 후 느꼈던 허전함도 잠시, 자매님의 신앙이 발전하고 있음을

전해 들으며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선교사 명찰을 달지 못하지만, 제가 선교사로서 느꼈던 그 기쁨의 크기는 오히려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둘째 지율이를 임신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리고 감사하시던 모습, 남편인 김우현 형제님께서 마음을 열고 조금씩 발전하시는 모습을 발견하실 때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자매님의 들뜬 목소리, 김 형제님의 침례식 날 기뻐하시던 모습 ... 8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제게 주시는 자매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매님이 복음 안에서 굳건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던 것은 제게 더없이 큰 기쁨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선교 사업의 기쁨이 이런 것이겠지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데살로니가전서 2:19~20)  
자매님도 저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같은 와드의 성도로서 서로 의지하고 함께 교화되면서, 이 재회의 기회가 주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의 일부임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요.

복음 생활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에요. 신앙을 키워 나가고 회개하고, 성찬을 통해 성약을 새롭게 하며, 성신이 동반하는 생활을 매일매일 이어가는 과정이요. 그렇게 계속 나아가는 것이 곧 끝까지 견디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 생활을 자매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자매님을 통해서 느끼는 이 기쁨이 계속될 것이며, 또 그것이 영속적인 것임에 감사합니다.

늘 자매님과 자매님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이혜진 자매.



사진: 김우현 형제와 김지원 자매의 가족 사진. 오른쪽 사진은 김지원 자매의 침례식, 왼쪽 아래 사진은 김우현 형제의 침례식 사진이다. 서울 서스테이크 장라 와드에서 있었던 김우현 형제의 침례식에 이혜진 자매님도 참석했다.

## 영원한 가족을 향한 소망의 힘

김우현 형제는 이번 호 사랑의 편지의 주인공인 김지원 자매의 남편이다.(5~6쪽에 게재)

### 청주 스테이크 흥덕 와드 김우현 형제

**딸** 아이와 아내가 침례를 받았을 무렵, 아내는 내게 던지시 교회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앞으로 다시는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아내의 소망을 일축하고 말았다. 나는 술 없이 사회 생활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담배는 물론 매일 일곱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나는 결코 가지 못하겠노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내에겐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예배를 보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 그러나 비협조적인 가장 탓에 복음 안에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신앙 생활도 흐릿해졌다. 그러던 중 우리 가족이 청주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나는 내심 '이젠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려고 하지 않겠구나' 하고 안도했다.

그런데 흥덕 와드 감독님께서 우리를 잘 부탁한다며 서울 서 스테이크 청라 와드 감독님께 연락을 취해놓으셨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 이사 후 정말로 청라

와드 감독님과 선교사님들,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아내가 둘째를 출산하자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은 음식도 만들어주시고 딸아이 혼자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차량까지 지원하며 물심양면 우리 가족을 돌봤다.

우리 가족을 위해 애써주시는 그 모습에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나는 선교사님과 첫 약속도 승낙하고 교회에도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천사 같은 장로님들의 사랑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침례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 술과 커피를 끊을 소망도, 자신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리아호나* 부록의 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2015년 11월호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를 추모하며"라는 특별 부록이었다. 거기엔 스코트 장로님께서 두 아이를 잃은 슬픔을 영원한 가족에 대한 신앙으로 극복하셨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나는 네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유복자나 다름없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성장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면, 아버지가 계시기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내 소원은 늘 꿈에서라도 아버지를 보는 것이었다. 스코트 장로님의 간증을 읽었을 때, 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고 우리 가족 모두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간 토론을 통해 들어왔던 장로님들의 진정어린 간증과, 물몬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성신의 느낌이 이 교리가 참됨을 내게 확신시켜 주었다.

나는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믿음을 갖게 된 나에게 지혜의 말씀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아내의 염원이 하늘에 상달된 지 6년 만인 2016년 1월 31일, 온 가족과 많은 회원들이 축하하는 가운데 나는 침례를 받았다.

가장 어렵게 느껴지던 지혜의 말씀이라는 숙제는 지금 나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이젠 술 마시자고 전화 오는 친구들도 없고 덕분에 내게 주어진 시간 대부분을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많은 것들이 변했다. 매사에 성신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자주 기도하면, 욕심, 이기심,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낀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은 지각 한번 없이 모든 안식일 모임에 참석하고 있으며, 성전 준비반도 꾸준히 참석해왔다. 가족 인봉과 돌아가신 조상을 위한 대리 의식을 통해 가족이 영원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신 주님께 더없이 감사드린다. ■

## 언젠가는 돌아가리라

### 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 윤복순 자매

**40**여 년 전, 고3 학생으로 짝꿍을 따라 교회 영어 회화반에 갔던 나는, 친구들의 권유로 하계 청소년 대회에 참석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먼저 침례받은

친구들이 돌아가며 했던 기도, 별을 보며 했던 수다가 아련히 떠오른다.

물몬경이 참된지 알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하며 성신의 속삭임을 느꼈고, 침례받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복음의

참됨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이후 열심히 신앙 생활을 했지만 저활동 회원이 되었고, 최근 14년이라는 오랜 기간 교회에 가지 않았다.

"언젠가는 돌아가리라"라고 생각했다.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자연재해를 보며 재림의 징조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기도 했고, 교회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이제는 돌아오는 게 어떠한 권유를

받으며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다.

어느 날 나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40년  
전 나에게 침례를 준 마샬 모리스 형제가 서울  
남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기 위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이었다. 이 먼 땅으로 두 번이나  
선교 사업을 오는 것이 나를 구조하고자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다시 교회로 가서  
주님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한국에 온 모리스 형제를 비롯해 여러 교회  
친구들이 함께 모임을 열었다. 다음 만남은 서울  
성전에서 하기로 함께 결정했고, 1년 반의 준비  
끝에 나는 성전 추천서를 받았고 서울 성전의

해의 왕국실에서 그들을 다시 만났다. 모리스  
형제는 “다음 세상에서도 아무도 빠짐없이 해의  
왕국에서 만나야 합니데이!”라고 말했다.

14년의 공백기를 거친 나는 교회의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고, 경전이나 복음에 관한 지식을  
많이 잊어버렸으며 많은 것이 어설퍼졌다.  
하지만, 몰몬경을 매일 읽으면 절대로 저활동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느 지도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노력하고 있다.

다시 교회로 오도록 도와준 교회 친구들과  
모리스 형제, 신앙의 선배님들의 끊임없는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



사진: 지난 해 인천 대회를 보기 위해 유대에 방문한 윤복순 자매와 그곳에서 만난 모리스 형제 부부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자매 5명 / 장로 3명



**김민지 자매**  
강릉 지방부  
속초 지부  
캐나다 토론토  
선교부



**김수진 자매**  
청주 스테이크  
상당 와드  
서울 남 선교부



**김지현 장로**  
대구 스테이크  
중리 와드  
서울 남 선교부



**서연경 자매**  
서울 서 스테이크  
개봉 와드  
서울 선교부



**이윤정 자매**  
청주 스테이크  
충주 와드  
서울 선교부



**이준호 장로**  
울산 지방부  
호계 지부  
캐나다 토론토  
선교부



**허창범 장로**  
청주 스테이크  
충주 와드  
서울 선교부



**이춘영 자매**  
청주 스테이크  
상당 와드  
서울 성전

### 정정합니다

지난 2월호 지역 소식 “자라나는 세대: 친구와 서로 강화하는  
청소년들”(L1쪽) 기사의 두 번째 문단에서, 기사의 주인공인 예비  
선교사들의 선교 사업 시작 시기를 2007년에서 2017년으로  
정정합니다.

지역 소식의 모든 기사와 사진들은 교회 한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한국 홈페이지: [www.lds.or.kr](http://www.lds.or.kr)
- 교회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ldschurchkorea/](http://www.facebook.com/ldschurchkorea/)

###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 청주 스테이크

제천 지부 회장: 유영호 형제(전임: 신성식 형제)

#### 홍성 지방부

대천 지부(지부 지도자 대리): Foley, Aaron H. 장로(전임: 김준학 장로)